

“우리사찰 안내판이 예뻐졌어요”

구례 화엄사 안내판 교체, 문화재청 사찰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마련

그동안 사찰 안내판들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과 일관성 없는 크기와 위치로 들쭉날쭉했다. 그러나 안내판 내용도 어려워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였다. 이런 고민이 이제 말끔히 해결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은 3월 20일 구례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 개선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2007년 5월 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작업은 1년여 동안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다.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을 디자인한 브랜드 나인의 심인보 대표가 디자인 컨셉을 “맑은 대로 곧은 대로”라고 할 만큼 안내판이 문화재 및 사찰 주변 환경과 하나된 모습이다. 안내판은 자연친화적 소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금속제를



변경전 '구층암' 유도안내판(좌측)과 변경 후(우측)의 모습. 새 안내판의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조화한 소재를 안내판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되 관람객을 최대한 배려했다. 관람객 시선을 고려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유도·안내하는 설치위치,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갈한 안내문으로 정

비했다. 특히 안내문안은 초·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됐으며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영문번역도 외국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의역해 문안을 간결하게 했다.

부적절한 높이와 금속 소재로 관람객들에게 위압감과 거리감을 주던 철제 보호책도 바뀌었다. 목재보호책으로 사찰경관과 석조물 등과 조화와 관람객의 시각적인 편안함을 추구했다.

문화재청 이길배 사무관은 “이번 화엄사 안내판 개선으로 전국 930여개 전통사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광사·해인사 등에서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이 추진중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화엄사 문화재안내판 준비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주요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보급 계획’의 일환이다. 2006년 궁궐 유형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을 마치고 경복궁, 창덕궁에 설치한 데 이어, 2007년 사찰 유형 문화재 안내판 사업을 화엄사에서 진행했다. 2008년 2월 부터는 왕릉·고분 유형 안내판을 준비 중이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광주 원각사 청년회 이승동 회장

세대초월해 신행·포교활동

빛고를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가는 총장이다. 소평과 금음의 중심지로 젊은이들이 붐비는 총장으로 조계총림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가 위치한다. 원각사는 어린이법회와 청년회법회를 열고 있는 광주지역 포교사찰이다.

광주지역 청년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6월 창립 88주년 제 27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 광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원각사 청년회 이승동(법명 法海) 회장을 만났다. 전국 2500여명의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찰 청년회 창립에 대한 스님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0여 년 전만해도 광주지역 사찰 청년회는 13개 지회와 광주지구구 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청년회는 ‘원각사 청년회’ 뿐이다.

원각사 청년회는 교리공부와 연꽃나눔봉사반, 경로잔치, 차보시, 영호남교류법회 등 활발하고 왕성한 포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지난 1991년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청대회 광주불교의 활성화위해 열릴것 각 사찰 스님과 단체들 적극적 지지 필요

불청대회는 올해 ‘꿈과 희망·대동·나눔’을 주제로 6월 14-15일 광주주요원에서 열린다. 빛고를 광주에 모인 청년불자들은 광주불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동한마당을 열 예정이다.

이승동 회장은 “비보이팀, 닷집터트리기, 재미있는 율동 등 공동체 놀이와 범종을 울려라, 불청의 역사다큐멘터리와 같은 불교적인 내용, 그리고 5·18모지 참배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불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자기기증과 헌혈행사를 전국의 각 지구에서 동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승동 회장은 지난 2년간 원각사 청년회를 이끌어왔다. 이번 불청대회를 위해 다시 소임을 맡게 됐다. 그는 이 회장을 “이번 불청대회를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2-3개의 청년

원각사 청년회에 입문해 지금까지 청년회의 동장으로 신행생활을 해 온 이승동 회장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에 다녀서 진실하다’는 말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신행생활에는 단연 수행이 으뜸이다. “한 글자에 한 번의 절을 하며 범종과 반야심경을 사경 기도를 한다”는 이 회장은 사경을 하며 부처님을 닮고자 노력해 왔다. 이 회장의 문득한 심심은 가족에게까지 이어져 이승동 회장에게는 “2남 1녀 중 한 아이라도 출가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다.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이 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의 단결된 모습으로 빛고를 광주에서 대한불교청년회의 비전을 찾기를 바란다”며 불청대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복한 꽃동산 만들어요”

광주 무각사 꽃밭 만들기 행사 개최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꽃동산을 만드니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광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5·18공원에서 ‘행복한 꽃동산 만들기-아름다움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꽃밭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화)와 자비봉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맥문동, 매발톱, 할미꽃,

별개미취 등 토종 야생화를 5·18공원 일대에 동참 시민들이 직접 심는 행사다. 청화스님(무각사 주지)은 “대중들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꽃씨를 심는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시작한 꽃밭 가꾸기는 4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가족단위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시아문화 해설사를 위한 강좌 개설

4월 3일 인도박물관에서 개강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정)은 ‘2008 아시아문화 해설사 아카데미’를 열고 4월 3일 인도박물관에서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체 13강의 상반기 강좌가 열린다. 강좌가 모두 끝난 후에는 현장스님과 ‘일본 속의 백제문화’ 역사탐방(4월 5일 일정)도 떠난다.

4월 3일 개강식에는 이병훈 단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시민들에게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대중강좌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아시아문화 문화 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 스님(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아시아문화의 네트워크와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카데미 개설 취지를 밝혔다. 강사로는 박정석 교수(목포대), 홍성훈 교수·최혜영 교수·김경화 교수(전남대), 정천주씨(소설가),

조윤미 박사(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황병하 교수(조선대), 양동춘 교수(녹색대학), 박양희씨(인도명상음악가), 무를 바수 대표(웰빙아시아) 등 전문학자와 문화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문의: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무국 (062)224-004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8 아시아문화해설사 아카데미 강의 편성표

| 강 | 일 | 주제 | 강사 |
|-----|--------|------------------------|-------|
| 1강 | 4월 3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비전 | 이병훈 |
| 2강 | 4월 10일 |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해 | 박정석 |
| 3강 | 4월 17일 | 아시아문화란 무엇인가? | 홍성훈 |
| 4강 | 4월 24일 | 서양문화를 통해서 본 아시아문화의 정체성 | 최혜영 |
| 5강 | 5월 1일 | 인물로 보는 한국의 차문화 | 정천주 |
| 6강 | 5월 8일 | 인도문화와 옛보기 | 김경화 |
| 7강 | 5월 15일 | 타민족의 정신문화 | 현장스님 |
| 8강 | 5월 22일 | 동남아시아문화 읽기 | 조윤미 |
| 9강 | 5월 29일 | 아시아 불교문화의 이해 | 이희재 |
| 10강 | 6월 5일 | 아시아 미술문화의 이해 | 황병하 |
| 11강 | 6월 12일 | 아시아 전통의학의 현대적 의미 | 양동춘 |
| 12강 | 6월 19일 | 인도의 명상음악 | 박양희 |
| 13강 | 6월 26일 |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의 이해 | 무를 바수 |

완주 정수사 중창불사 회향 및 극락전 낙성식 봉행

완주 정수사(주지 동수)가 8년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마치는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3월 17일 열린 ‘중창불사 회향 및 극락전 낙성식’에는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 덕림 스님(전북불교회관 원각), 김완주 전북도지사, 임정엽 완주 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인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상을 봉안하고 있는 정수사는 889년(신라 진성왕 2년)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 정유재란,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많은 전각이 소실된 것을 지난 2000년부터 산신각, 대웅전 등을 복원해왔다.

조종세 전북지사장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창종 10주년 기념대법회

종정 도암 혜우

- 승정원장 일암 원로원장 보각
- 총무원장 정일 포교원장 덕산
- 문화원장 도월 종회의장 지원

중도일동

- 일시: 2008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충북 충주시 목행동 이화예식장
- 문의: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총무원 043)854-6855, 010-3176-2855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34-1 해월사)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작장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 구분 | 화재 | 화재 | 상해 |
|-------|--|--|-----------------------------|
| 기본 담보 | 화재손해 | 시설소유 배상책임 | 24시간 상해 |
| 선택 담보 |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상 수술비용 |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